

배포일시	2011. 05. 23.(월) 11:00 (총4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청주기상대	담당자	대장 김남길
		전화번호	043-265-7504

< 가을철(9~11월) 기후전망 >
 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전망 —

기온 전망

평년(11~19℃)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. 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으며,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.

강수량 전망

평년(195~435mm)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됨.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.

엘니뇨/라니냐 전망

엘니뇨 감시구역(5°S~5°N, 170°W~120°W)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상태(해수면온도 편차 : 4월 -0.7, 최근(5월 둘째 주) -0.4℃)이며,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여름철 초반에 평년상태가 되어 가을철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
※ 첨부 : 2011년 가을철 기후전망 설명자료

【 알 림 】

- 기후전망은 연 4회(매년 2월, 5월, 8월, 11월의 23일경) 발표되며, 한 계절 이후의 전반적인 기온, 강수량, 엘니뇨/라니냐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2011년 겨울철 기후전망은 2011년 8월 23일 오전 11시 발표 예정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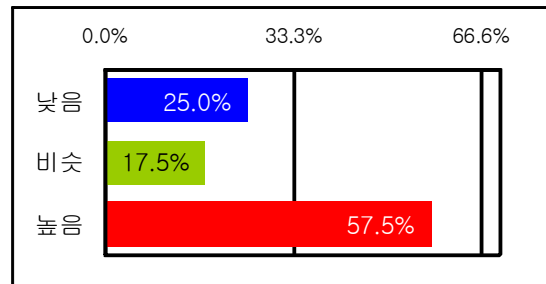
2011년 가을철 기후전망

※ 2011년 겨울철 기후전망은 2011년 8월 23일 오전 11시에 발표됩니다.

-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,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
- 라니냐 현상은 여름철에 평년상태로 회복되어 가을철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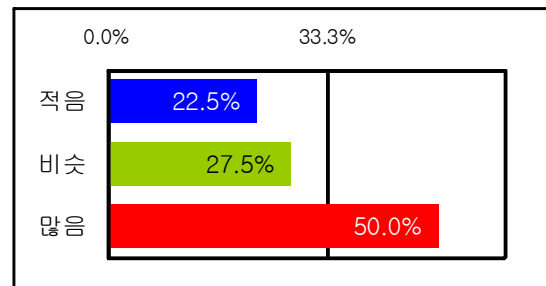
1. 기온 전망

평년(11~19℃)보다 높겠음. 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으며,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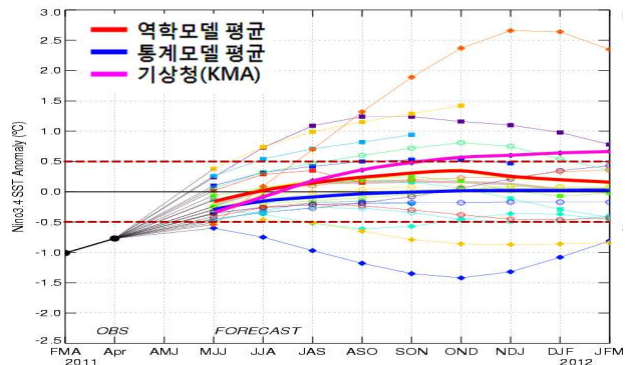
2. 강수량 전망

평년(195~435mm)보다 많겠음.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.



3. 엘니뇨/라니냐 전망

엘니뇨 감시구역(5°S~5°N, 170°W~120°W)의 해수면온도는 여름철에 평년상태가 되어 가을철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


※ 참고사항 :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(낮음/적음, 비슷, 높음/많음)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합니다. 백분율이 33.3%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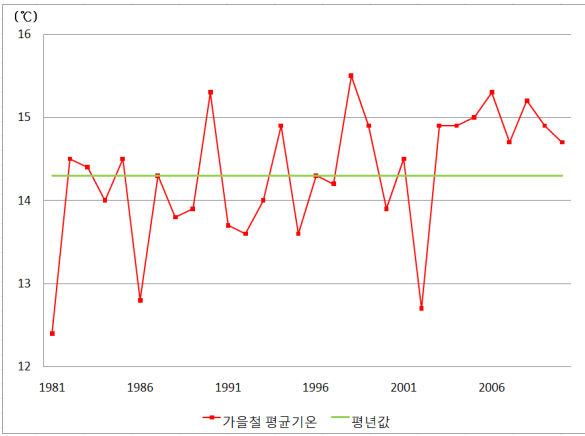
<월 단위 이상 기간에 대한 3분위 판정 기준표>

구분	기온 편차(℃)	강수량 평년비(%)
높음(많음)	>0.5	>120
비슷	-0.5~0.5	70~120
낮음(적음)	<-0.5	<7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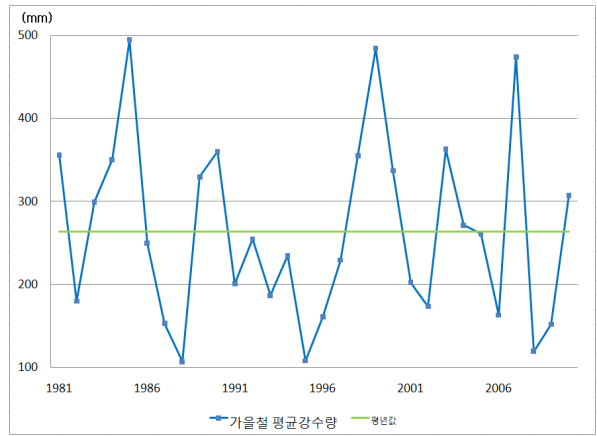
[참고자료 1] 가을철 평년 기온, 강수량 분포와 2010년 가을철 기온 및 강수량 편차

평년(1981~2010) 가을철 기온·강수량의 시계열

○ 기온(°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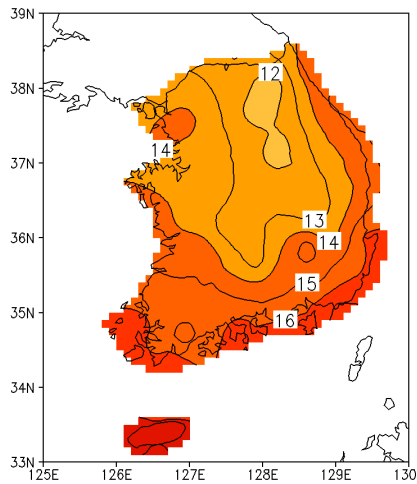


○ 강수량(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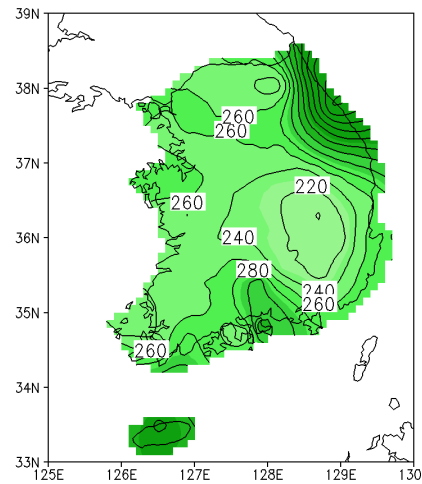


평년(1981~2010) 가을철 기온·강수량의 공간분포

○ 기온(°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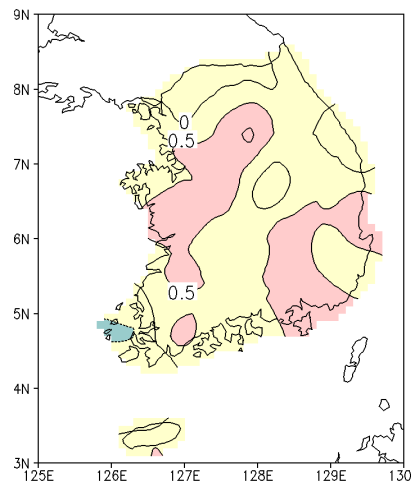


○ 강수량(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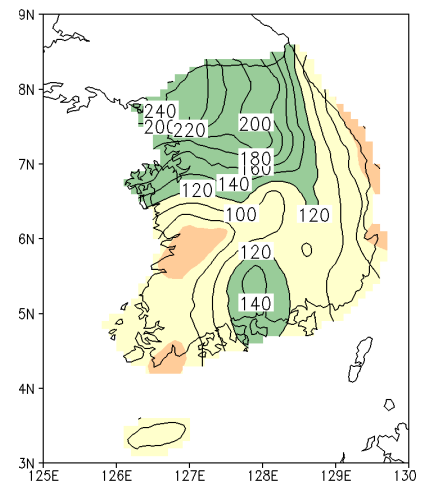


2010년 가을철 기온·강수량의 평년편차 공간분포

○ 기온 편차(°C)



○ 강수량 평비(%)



※ 위의 시계열과 분포도는 최근 30년(1981~2010년) 우리나라의 47개 지점 관측소 값을 사용한 평년값임

[참고자료 2] 최근 10년(2001~2010년)의 유사해 및 특이사례

□ 기온이 평년보다 0.5℃ 이상 높고,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던(평년비 120%) 해

<최근 10년의 기온 편차(℃)와 강수량 평년비(%)>

연도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
기온 편차(℃)	0.2	-1.6	0.6	0.6	0.7	1.0	0.4	0.9	0.6	0.4
강수량 평년비(%)	77	66	138	103	99	62	180	45	58	117

○ 2003년

- 9월에 태풍 ‘매미’에 의해 강수량이 많았고, 11월에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으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았음. 첫얼음과 첫눈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늦게 관측되었음.
- 10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나,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두세 번 쌀쌀한 날씨를 보였음. 기온은 평년보다 0.8℃ 낮고, 강수량은 평년대비 53%로 적었음.

□ 태풍으로 인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던(평년비 120%이상) 해

○ 2003년 : 태풍 ‘매미’(9.12~13)

- 경남 해안(사천)에 상륙한 후 경북 동해안을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남해안 일대와 강원 및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강수를 내렸음.
- 전국적으로 4조 이상의 재산피해와 1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.

○ 2007년 : 태풍 ‘나리’(9.13~18)

- 전남 해안(고흥반도)에 상륙하면서 제주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음.
- 전국적으로 1,500억 이상의 재산피해와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.